

지역 소식통

삼례목수학교 신입생 모집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 위치하고 있는 김상림목공소가 2020년 삼례목수학교 제4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목수학교는 목공 감각을 개발하고 나아가 목수로서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김상림목공소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됐다.

이번 목수학교에서는 나무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하고 전통 기법을 익혀 자신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목수로서의 비전을 제시한다.

교육과정은 수공구 이해와 사용법과 같은 기본적인 이론부터 시작해 직접 목가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실습까지 이뤄진다. 또한, 완성된 목가구를 전시하는 수리기념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10명으로, 완주군 민뿐만 아니라 목공예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3월 중순경부터 시작해 총 20회로 운영될 계획이 다.

지원 서류는 이력서 형식의 자기소개서 1부이며, 목공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ksnamu3@naver.com)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김상림 목공소(070-8915-8130)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민원인 주차장 확대 운영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지난 24일부터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존에 8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번에 상록관 앞에 8면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16면으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였다.

민원인이 주차를 하기 편하도록 파란색으로 '주차 라인'과 '민원주차' 문구를 도색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잦은 접촉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습관적으로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방역체계 강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단계로 격상 완주군, 선별진료소 3교대 근무·24시간 운영·일제 방역

완주군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에 맞춰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25일 오전 군청사 부근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응 일일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유학생 자율격리 강화와 군부대·사회복무요원 격리 대책,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문 협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 부군수는 또 "바늘구멍이 거대한 독을 무너뜨릴 수 있듯, 감염병 대응 역시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읍면·마을별 일제방역 등 철저한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완주군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과 관련,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하루 12명씩 투입하는 3교대 근무로 전환해 24시간 운영체제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코로나19 증

식까지 공중보건의 선별진료소 투입에 따른 일반진료 업무는 주 2~3일의 보건지소 운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 여행력에 관계없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결과 전국적 확산 이후 검사자와 방문객, 유선민원이 급증해 지금까지 누적 민원 상담은 1,070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완주군은 선별진료소 24시간 운영과 관련한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중국 유학생 스마트폰 방역앱을 활용한 1대 1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의심환자나 접촉자 발생 시 거주지 주변 방역소독, 중국 방문객과 입국자 전수 발열조사와 건강상태 확인, 종교시설과 주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가시화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투자제한 공모'에 선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4일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투자제한 공모'에 선정되어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새만금 투자유치형 발전사업(1.4GW)을 인센티브로 활용한 새만금 투자제한안을 공모했고, 기업투자와 새만금 개발사업 등 다양한 투자제한안이 총 14건 접수됐으며, 지난 20일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새만금 개발 추진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김제시의 국제협력용지 내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비롯해 총 4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김제시는 국내의 유명 1군 건설사, 금융사 및 발전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



김제시는 지난 24일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투자제한 공모'에 선정되었다.

성하여 사업제안서를 지난 1월 7일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김제시에서 제안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새만금 개발방향과 적합성, 새만금 개발 추진 가능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에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번 개발

투자형 발전사업 제안공모의 대상 사업지역에 복합단지 개발부지가 포함되었고, 그 결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어왔다.

김제시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된 만큼 제3자 공모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면서도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될 때까지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산불없는 완주군 만들기 교육 진행

'완주군이 산불없는 완주만들기'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1일과 24일 이틀간 산불감시원 80명을 대상으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강사를 초청해 산

불에 대한 이론교육 및 산불진화장비를 활용한 진화훈련을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산불감시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은 첫

째 날, 산불의 기본지식, 산불예방·진화

와 대처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이론교육을 실시했다. 둘째 날에는 진화에 필요한 각종 장비 활용법과 뒷방 정리 요령 등 실제 산불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제와 같은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는 25일 도시재생분야 참여확대를 위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호원대학교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제시-호원대 업무협약 체결

김제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마련

김제시는 25일 도시재생분야 참여확대를 위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호원대학교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을 비롯해 서유석 부총장, 박준배 김제시장, 박민우 안전개발국장, 유희중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김제시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제공, 도시재생 사업의 인적자원지원 및 연계사업 발굴, 지역 활성화자원 발굴개발 및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모색, 기타 상호간 협의하는 사항 등

에 대한 협력이다.

김제시는 '18년 선정된 요충동 중심지가 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19년 선정된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협약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청년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지평선학당,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김제시라장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에서 운영하는 김제 지평선학당이 김제 소방서에서 선정하는 2020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재인증 되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선정한다.

김제 지평선학당은 중·고생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지역 청·장년층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공

무원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어 무엇보다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2013년부터 우수업소로 선정된 후 지금까지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정기적 점검과 관리를 통해 올해 재인증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판이 입구에 부착 되어있다.

한편 서원태 상임이사는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소방시설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